

이현재(二法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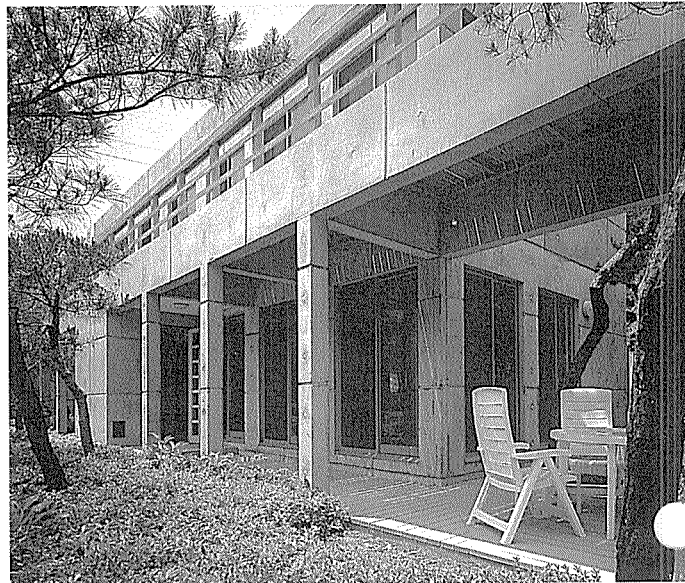
Yi-Hyun-Jae

노형래/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Noh Hyung-Nae

이현재(二法齋)는 울창한 수림의 산을 배경으로 조용한 마을 한켠에 자연의 부분인 듯 계획되어진 주택이다. 대지는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같은 소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배산과 묘목원의 한부분으로 새소리와 만개한 철쭉, 목련, 녹음과 계곡물, 단풍, 눈꽃 등 사계절마다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지의 앞마당과 같은 채소밭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이를 원천으로 명종 유실수 및 채소류가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 환경과 순응하기 위해 장식성을 배제한 사각형 Mass에 노출콘크리트의 솔직함으로 순수성을 부여하고 자연을 애용하도록 개방된 Facade의 Box Opening을 계획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남측에 Open Space(前庭)을 두고 북측으로 배치하여 자연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 자연을 품에 안도록 의도하였으며, 본체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형태는 수직 Frame에 의해 연계 및 분리가 이루어지며 동일한 패턴의 사용으로 일체성을 형성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1층은 주방, 거실 등 가족공동의 영역으로 일부구간(주현관 및 거실전면)은 목재 Deck를 사용하여 개방성과 외부공간과 연계를 추구하였으며, 2층은 주거 영역으로 외부조망과 함께 독립성을 가진 안락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2층의 각실에는 목재 Deck를 설치하여 주거공간의 외부적 확장을 꾀하고 남측의 따사로운 햇빛과 자연을 조망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의 이름에서 따온 글자로 이현재라 이름 지어진 이 공간에서 산, 오솔길, 흙, 시냇물의 외부공간과 더불어 그 속에서 채소를 가꾸며, 흙을 만지고 계곡물에서 가재를 잡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자연속의 즐거움을 기대해 본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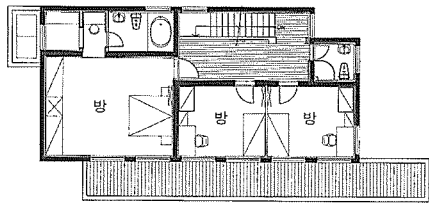
부지면적	3,126.06㎡	허가면적	: 326㎡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82.85㎡		
연면적	262.47㎡		
건폐율	56%		
용적률	80.51%		
최고높이	7.35m		
규모	지상2층		
외장재료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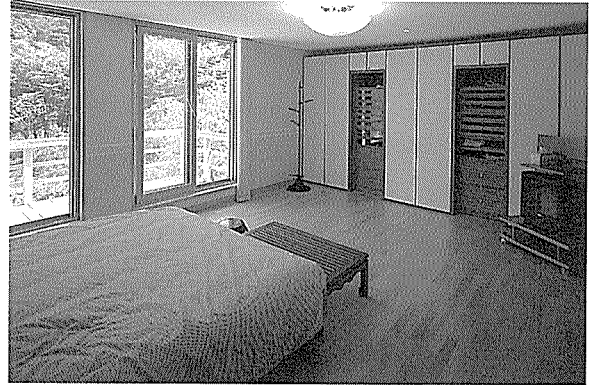
데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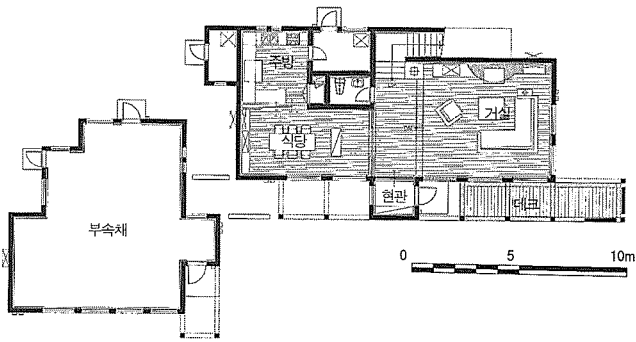
데크에서 주현관을 본 모습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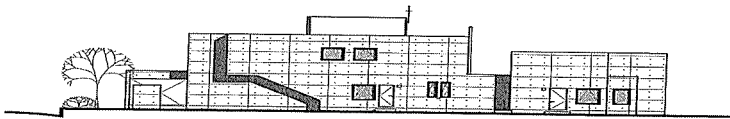
2층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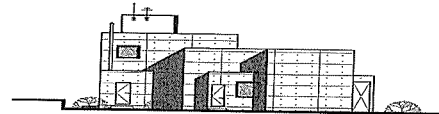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층 거실



배면도



좌측면도

